2012. 5. 21. Vol. 21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일제 지도·단속

거시경제 동향
2012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기획 정보
농업부문 고용실태 및 안정화 방안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 향 분 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 본 자료는 5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 경과

❍ **'12.1.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 국내 절차: 공청회(2.24) → FTA 추진위원회(4.13) → 대외경제장관회의(4.16)

- 농식품부는 생산자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계 의견 수렴 중

※ 품목별 전문가 회의(18회), 장·차관 현장활동(15회), 토론회(1회), 전문가 포럼(3회) 등 총 51회 의견수렴('12년)

❍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5.2, 북경)

- 협상개시의 전제가 되는 단계별 협상구조, 민감분야 보호방식 관련 공동 성명문 발표

※ '10.9월부터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 간 사전협의 종료

❑ 1차 협상 결과

❍ **1단계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 등 **분야별 협상의 틀을 도출**

- **상품 분야**는 일반/민감/초민감으로 구분하여 초민감/민감 품목군에 대해 양허제외 등 **다양한 민감성 보호 장치를 마련**
-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 **여타 분야는** 상호 의견 교환을 거쳐 **2단계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도출**
- 1단계 협상결과는 양국 간 서면합의를 추진하고, 1단계 협상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2단계에서 전면 협상 착수

❍ 또한 금번 협의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가 설치

- 동 위원회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함.

※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 추진**

❑ 향후 계획

❍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

-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부분 관세철폐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
- 품목군별·분야별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한·중 FTA 대책단'(단장: 1차관, 협상·국내대책·홍보반)을 구성·운영('12.5~)
- 시설현대화 등 농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FTA대책 지속 추진

❍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소통강화

❍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여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진출확대 기회로 활용

주요 농정 이슈_2 |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일제 지도·단속**

※ 본 자료는 5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목적

❍ **2012.4.30일자로 양곡관리법 양곡표시제도의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정된 양곡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정부 공급 쌀 부정유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쌀 포장재 표시사항 변경 내용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품위(등급)	특, 상, 보통	1등급, 2, 3, 4, 5, 미검사
품 종	계통명[일반계, 장립종]	「품종명, 품종별 혼합비율, 혼합」 중 하나를 선택표시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중량 10kg 이상: 16포인트 이상 중량 10kg 미만: 12포인트 이상

❑ 단속대상

❍ 양곡매매 및 가공업체: 123천 개소

- 대형유통업체 506개소, 양곡 도소매상 8,439, 양곡가공업체 2,769, 기타 111,743
- 정부 가공용쌀 공급 지정업체: 800개소

· 떡면류 327개소, 과자류 69, 미분류 56, 주류 258, 조미식품 등 90

※ 단속 기간: 2012. 5. 15. ~ 2012. 5. 31.(17일간)

❑ 단속내용

❍ **개정된 양곡표시제도**에 의한 **표시사항** 및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 **쌀의 원산지 및 품종표시 의심품**에 대한 DNA분석 및 추적·잠복단속

❍ **생산연도 혼합, 또는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G·O·P시약[1] 처리 단속

-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

  ·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0년산 이전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

❍ **가공용 쌀 공급지정업체의 부정유출·지정용도 외 사용여부** 집중 단속

-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다 공매('12.1.17.)한 2009년산 쌀 21만 톤에 대하여도 낙찰업체가 생산연도 및 연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 단속결과 조치

❍ 양곡표시사항 거짓표시 등 양곡표시 위반업체는 사법 처리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과태료 5~200만 원

1) 구아야콜(Guaiacol)액, 과산화수소수(Oxydol), 파라페닐엔디아민(Paraphenylenediamine)액을 쌀, 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정도로 신선도를 판정하는 것

거시경제 동향 | **2012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5월 1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2012년 4월 수출물가**는 운송장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

- **농림수산품: 전월대비 0.5% 하락**

- 공산품: 석유화학·고무제품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운송장비제품, 일반기계·장비제품, D램 등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6% 상승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 월 대 비				전년 동월대비			
		'12.1월	2월	3월	**4월**	'12.1월	2월	3월	**4월**
총 지 수	1000.0	1.1	-0.6	**0.5**	**0.6**	4.6	2.1	0.0	**2.0**
		<1.3>	<1.3>	<0.5>	**<-0.3>**	<2.3>	<1.6>	<0.1>	**<-1.9>**
농림수산품	5.1	-0.4	-2.7	-2.7	**-0.5**	18.3	12.3	7.6	**10.0**
공 산 품	994.9	1.1	-0.6	0.5	**0.6**	4.5	2.0	-0.1	**2.0**
석유화학·고무제품	193.1	4.0	1.3	1.6	**-0.1**	10.1	6.3	1.7	**1.6**
1차금속제품	72.8	0.4	-0.8	-0.5	**0.3**	-0.8	-2.7	-5.4	**-4.3**
일반기계·장비제품	66.6	0.4	-1.6	0.8	**1.2**	4.7	2.8	2.4	**6.0**
전기장비제품	53.8	0.3	-1.1	0.3	**0.5**	1.3	-0.6	-0.8	**2.3**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361.5	0.0	-1.8	0.1	**0.1**	-0.3	-2.2	-2.1	**0.4**
운송장비제품	144.4	-1.6	-1.3	0.2	**2.0**	2.4	0.9	0.1	**4.3**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수입물가지수

❍ **2012년 4월 수입물가**는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도 1.7%로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

- 원자재: **대두, 옥수수 등 농림수산품이 올랐으나** 원유, 유연탄 등 광산품 가격은 내려 전월대비 2.3% 하락
- 중간재: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올랐으나 석유제품, 1차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9% 상승, 소비재는 전월대비 1.1% 하락

<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 월 대 비				전년 동월대비			
		'12.1월	2월	3월	**4월**	'12.1월	2월	3월	**4월**
총 지 수	1000.0	0.8	0.5	1.7	**-1.0**	7.9	5.2	3.5	**1.7**
		<1.0>	<2.6>	<1.9>	**<-2.0>**	<5.3>	<4.6>	<3.5>	**<-2.5>**
원 자 재	**278.2**	0.8	1.8	3.8	**-2.3**	16.8	12.5	10.4	**3.0**
농림수산품	30.2	1.7	-0.6	1.8	**1.2**	-8.0	-11.9	-13.1	**-8.6**
광 산 품	248.0	0.7	2.0	4.0	**-2.6**	20.0	15.5	13.2	**4.3**
중 간 재	**556.7**	1.1	-0.3	0.2	**-0.2**	2.4	0.3	-1.6	**0.0**
석유제품	34.8	6.6	6.2	5.7	**-4.5**	14.0	18.2	14.2	**5.9**
화학제품	87.4	1.2	-0.1	0.6	**0.7**	6.2	3.0	-0.8	**1.1**
비금속광물제품	14.0	-3.2	-1.6	0.1	**0.8**	-4.0	-6.1	-8.3	**-3.9**
1차금속제품	98.7	1.4	-0.2	-0.6	**-1.0**	-3.6	-6.7	-6.8	**-5.9**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154.6	-0.4	-2.5	-0.4	**0.4**	2.6	0.1	-1.5	**2.5**
자 본 재	**98.6**	-0.7	-1.9	-0.9	**0.9**	3.0	1.1	-1.0	**2.9**
소 비 재	**66.5**	0.5	0.0	2.4	**-1.1**	3.1	3.2	3.9	**4.8**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고용동향

1) 국가 전체

❍ **2012년 4월 국가 전체 취업자**[2]는 2,47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5만 5천 명 증가**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
  ※ 국가 전체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천 명): (2010.4) 401 → (2011.4) 379 → (2012.4) 455
- **2012년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률 추이((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 (2010.4) 59.1 → (2011.4) 59.3 → (2012.4) 59.7
- **2012년 4월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률 추이((실업자÷경제 활동 인구)×100, %): (2010.4) 3.8 → (2011.4) 3.7 → (2012.4) 3.5

2) 농림어업

❍ **2012년 4월 농림어업 취업자**는 16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만 9천 명 감소(-1.8%)**

- **2012년 1~4월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누계 12만 3천 명 감소)**

2)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노동력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봄철 농번기**(4~6월)에는 수도작의 경우, 모내기(이앙), 전작의 경우, 파종 및 정식 작업에 **노동인력의 수급 불일치 심화 예상**

❑ 농업인력 수급실태

❍ (**농촌지역 인력 수급 불일치 심각**)

- 농업부문은 고용인력의 **공급이 절대적, 계절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 불일치" 발생
  -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 **83.3%**
  - **'일용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 **61%**
- 인력 조달이 어려운 이유: 농촌인구의 고령화(39.2%), 공공근로로 인력 유출(29.7%), 농촌 인력 감소(24.3%)

❍ (**농촌지역 인력회사 노동자들의 농작업 기피**)

- 주로 지역 내 **건설업과 서비스업 선호. 농작업은 3D업종으로 인식**
  - **농작업 비선호 비율: 80.4%**
  - 농작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일이 어려워서(41.9%), 임금이 적어서(17.4%), 일이 없어서(7.0%)

❍ (**농축산업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 심화 추세**)

- **시설원예, 버섯재배공장** 등의 상시고용 인력 **합법 외국인근로자** 및 **해외이주여성**이 주를 이룸.
  - **오지·벽지 축사, 고랭지채소·양념채소 등 파종·수확기 인력**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활용**

❍ (**희망근로사업의 농촌 고용시장 교란 심각**)

- 노동 강도 낮고, 근로시간 적어 희망근로사업으로의 인력 유출 증가
  - 농작업의 **임금 상승 및 도덕적 해이 등을 확산**시켜 부정적 효과 심각
- 고용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 농촌인구의 '고령화(48.5%)', **'공공근로로 인력이 빠져나가서(22.5%)'**, '농촌의 인력이 계속 줄어들어서(13.3%)', '너무 비싼 임금을 요구해서(2.6%)'

❑ 농업인력 안정화 방안

❍ (**농어촌인력은행 및 맞춤형 인력공급시스템 구축**)

- 농어촌인력은행을 설치 및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 지역 맞춤형 인력공급 추진 필요
  - 각 농가별로 고용인력 수요에 대해 D/B 관리
  - **농작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급여매칭보조", "직업능력교육" 등 지원 사업 추진**
- '농어촌 인력은행' 또는 '농어업 고용촉진센터'를 설립·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높아('좋을 것 같다' 이상 76.2%)

❍ (**외국인근로자 농축산업 쿼터 증량과 고용조건 개선**)

- 농작업은 일정 수준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외국인력 확충, 고용계약 기간 연장, 기술훈련 등이 필요함.
- 농업·농촌에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 '고용기간 연장'(32.0%), '인력고용 보조금지원'(19.6%), '기술훈련 및 교육'(16.6%), '언어교육'(15.4%)

❍ (**희망근로사업 중단 또는 개선**)

- 농촌인력시장을 교란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농사일에 배정하되 사업주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근로의 질 제고 필요
- 희망근로급여를 줄이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합산하여 실질적인 인력 활용 유도
- 농작업 희망근로 배정자들에 대해 일정기간(2~6개월) 배정(의무)하여 인력의 안정적 활용 도모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력네트워크 운영**)

- 농촌지역 및 농촌인근 도시지역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력 네트워크화 하여 **농업인력 공급원으로 활용**

❍ (**청년들의 취농 유인을 위한 청년인턴제 추진**)

-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이 **농업을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미래농업 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추진**

  · 1년 정도 계약기간을 정하고 월정 급여 지급(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일정기간 OJT[3] 교육 및 현장실습 후 농업노동취업 알선

※ 자료: 통계청, "2012년 4월 고용동향", 김병률 외,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3) OJT(On the Job Training): 현장감독자 등 직속 상사가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통해 개별지도·교육하는 것

농정 여론 동향 |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5월 14일~18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높은 여름과일 가격, 수입 과일 소비 증가로 이어져

❍ 최근 들어 **여름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겨울 한파 등으로 발생한 생육 장애가 지속적으로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4월 하순부터 고온에 의한 병충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가격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 전망. 그 결과 **국내산 과일소비시장은 냉랭**한데 반해 **수입산 과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여름철 과일로 꼽히고 있는 **수박·참외·토마토 가격강세로**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 과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함께 들썩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5.16), 매일경제신문(2012.5.17).

❑ 한·베트남 FTA 곧 협상 개시

❍ 정부, 5.10일 **'한·베트남 FTA 추진계획' 의결.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 다음 달 협상 개시 선언 한 뒤** 곧바로 **본격적인 협상 시작**되면 **쌀·열대과일 등이 쟁점**. 베트남은 태국에 이은 제2의 쌀 수출국으로, 1999년과 2011년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소량의 쌀을 한국에 수출. "우리가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면, 베트남은 열대과일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농경연 관계자).

자료: 농민신문(2012.5.14).

❑ "중국산 농산물 안전성 · 품질 못믿겠다" 96%

❍ 농경연, 「최근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96%가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향후 한·중 FTA체결 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나 철폐로 인해 **지금보다 고품질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대량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중국에서의 농식품 생산과 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다'**, **'한국 수입업자들의 폭리로 중국에서 저가격의 저질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 **가계소비자들…'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는다'(63.5%)**인 반면 **재중 한국인…'과거보다 조금나아 졌다'(46.6%), '상당히 개선됐다'(32.7%)** 응답, **식당영업주…'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와 '상당히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1%와 9.4%**.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가계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재중 한국인과 식당영업주의 인식은 크게 개선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17).

❑ 4월 농식품 수출액 올해 첫 감소세

❍ 농식품부, 올 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농림수산식품 수출이 4월 처음 감소**. 5억 달러(1월) → 6억3,000만 달러(2월) → 6억9,000만 달러(3월)로 상승세 지속하다가 6억2,000만 달러(4월)로 하락. **이는 전년 동기(6억 7,000만 달러) 대비 5,000만 달러 감소. 다만 1~4월 누계기준으로 보면, 농림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은 24억4,000만 달러로 전년(22억 4,000만 달러) 동기대비 2억 달러 많은 수준**. 지난달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3월 일본 지진 발생 이후 일본·중국·미국 등에서 한국산 대체수요가 발생해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기준 시점의 경제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였거나 또는 크게 부진할 경우 비교 시점의 경제지표가 실제 경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

자료: 농민신문(2012.5.14).
참조: 농식품부 「4월 농림수산식품 수출 6.2억불」 보도자료(2011.5.11).

❑ 지난해 농지거래면적 전년보다 2.1% 증가

❍ 농식품부, **2011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발표에서 지난해 거래된 총 농지거래면적이 **전년보다 2.1% 증가. 농지거래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일부 투기우려 지역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전체 농지거래 면적(53만5,000ha)의 92.7%를 차지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는 49만 6,000ha로 **전년(48만4,000ha)보다 2.5% 증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1,000㎡(302.5평)미만의 소규모 농지취득면적**은 2,776ha로 **전년(2,777ha) 수준**,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거래 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그 다음으로 경기, 경남지역이 증가**한 반면 **충남, 경북, 인천 등 일부지역**은 **감소**

자료: 농축유통신문(2012.5.14).
참조: 농식품부 「2011년 농지거래 면적 54천ha로 전년보다 증가 추정」 보도자료(2011.5.10).

❑ "달릴수록 적자" 농촌버스의 비애

❍ 최근 **일부 지자체 농촌지역 버스회사의 경영난으로 운행 중단 등의 운행 문제 발생**해 주민들 불안.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버스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가 급등**으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해 영세한 버스회사의 경영이 더욱 악화**. 경영난이 심각한 일부 업체는 수익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버스 운행횟수 감축 검토하거나 운행 중단. 교통전문가들…**버스 운행은 주민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중앙정부…**노령농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농어촌버스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해당 지자체…**소형버스 등을 구입해 직접 운행**하는 방안 강구(농경연 박대식 농촌정책연구부장)

자료: 농민신문(2012.5.14).

❑ 이주여성 통계 '엉터리'

❍ 정부, **이주여성 통계에 읍면 단위 조사자료가 빠져 있어** 그동안의 **통계조사 부실**. 현재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파악. 이와 같은 **부실 통계 조사는 농어촌 이주여성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그 파문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이를 인식한 농식품부에서는 읍면 단위 자료를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

※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실시. 국적 미취득자와 취득자·외국계주민자녀로 나눠 발표하는데, 국적 미취득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수치 사용, 나머지는 자체 조사. 이 조사의 단위가 시·도와 시·군·구로만 되어 있음.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14).

❑ e-나라지표(www.index.go.kr)의 농업분야 지표

❍ e-나라지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은 **국가 공식 승인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현황이나 각종 행정자료들을 가공한 내용 포함**

※ 분야별 지표: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무 등 각 분야별로 대-중-소 세 분류 단계별 접근

※ 부처별 지표: 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부, 청 등 소관 부처별 접근

❍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정책 결과의 변동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쉽게 그 추이를 알 수 있음.

- 또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표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함께 제공

❍ **농업분야 지표는 5개 대분류**(농산물 생산소비, 농산물/위생, 농업생산기반, 농업일반, 농촌생활/지원)**의 17개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 농업분야 지표 >

구 분	지 표 명
농산물 생산소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쌀 수급 추이,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 추이
농산물 위생/안전성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이
농업생산기반	경지면적 추이,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농업 기계화 현황, 직접지불금 현황
농업일반	농가교역조건지수, 농가부채·자산·부채상환능력,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 농림업 생산액 및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 농어가 소득현황,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중
농촌생활/지원	농어업인 복지지원현황,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도농교류현황

❑ 직불금 투자 규모 추이

❍ 가격은 시장에 맡기되 농가소득감소는 직접지불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농업정책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 직접지불금 투자 규모는 '95년 144억 원에서 **'12년 15,905억 원으로 대폭 증가**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01년 논농업직불금 2,105억 원 지급으로 시작, **'12년에 6,801억 원으로 크게 증가**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면서 '11년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쌀가격 안정으로 '12년 예산이 대폭 감소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99년 57억 원에서 **'12년 506억 원으로 증가**

-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인이 증가하고, 지자체 지원도 확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02년 15억 원에서 **'12년 436억 원으로 증가**

- 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증가: '04~'05시범사업(399개 오지면), '06년 본사업 추진, '07년 경사도 14%이상 및 전도서로 확대

❍ 기타 신규직불제는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

- 밭농직불제('12년 신규 도입):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도입(19품목, 624억 원)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12년 신규 도입):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지역 어가에게 지급(18억 원)
- 농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로 지원액 증가: ('01) 2개 → ('11년) 50 → ('12년) 61
- 연금보험료 지원액 증가: ('06) 673억 원 → ('08) 884 → ('10) 940 → ('11) 869 → ('12) 924

< 직접지불금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87,335	87,035	99,878	103,202	104,004	104,420
직불예산합계	21,466	19,475	15,914	20,224	21,704	15,909
직불예산 비중	25	22	16	20	21	15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7,171	7,116	7,088	6,650	6,195	6,181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기금)	9,501	5,330	676	5,951	7,993	620
경영이양직불제	113	300	845	699	623	659
친환경농업직불제	175	263	423	520	379	506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23	432	336	417	388	436
경관보전직불제	10	26	96	157	139	76
FTA피해보전직불제	10	1,000	400	250	250	600
폐업지원	603	1,000	500	300	300	300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	-	-	-	-	14
밭농업직불제	-	-	-	-	-	624
농작물재해보험	558	596	618	677	972	1,140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149	641	118	68	63
가축재해보험	-	287	278	309	331	358
여성농업인일손돕기	240	-	-	-	-	0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1,272	1,356	1,707	1,594	1,544	1,669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268	411	406	406	310	0
취약농가인력지원	28	47	47	55	65	63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	-	-	-	275
부적지감귤과원정비	-	-	-	-	-	0
농어업인재해공제	227	278	322	332	372	371
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	761	884	917	940	869	924
농업인자녀학자금	-	-	-	-	-	-
친환경축산	-	-	-	-	-	-
마늘경쟁력제고(작목전환)	6	-	-	-	-	-
생산조정보상	-	-	-	-	-	-
FTA피해보전직불제(수산)	-	-	15	15	15	30
폐업지원(수산)	-	-	90	50	50	50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	-	0	-	-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	26	42	64	70
어선원및어선보험	-	-	364	629	677	727
환경친화배합사료(수산)	-	-	70	63	50	85
친환경어구보급	-	-	49	50	50	50
환경친화부표지급	-	-	0	-	-	-

주: 1) 농림수산식품부예산: 예산(일반지출)에 기금(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FTA기금, 축발기금, 수산기금) 직불예산을 합한 금액, '08년까지는 농업예산 기준, '09년부터는 수산예산 포함
2) 쌀소득보전직불(고정): 종래 논농업직접지불을 '05년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로 개편
3) 쌀소득보전직불(변동, 기금): '03년 예산사업으로 도입되었으나 '04년부터 기금으로 운영,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외 기타 기금사업은 제외
4)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08년부터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5) '12년부터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복지부로 이관,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이관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